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7월 21일 (제101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걸럼

3T

‘3T’을 아는가? 타이틀(Title), 타겟(Target), 타이밍(Timing)이다. 어떤 일을 기획할 때 이 ‘3T’가 있어야 한다. 먼저는 기획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매력적인 타이틀은 있는가. 둘째는 기획하는 것에 부합하는 타겟은 누구인가. 셋째는 이 기획을 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형집회를 많이 했다. 대형집회를 할 때면 타이틀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 고민한다. 전도집회인지, 아니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인지.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생각한다. 전도집회라면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도록 광고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짠다. 다음은 타이밍이다. 국가에 위기가 왔을 때,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었을 때면 우리는 즉각 기도성회를 개최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기에 부천실내체육관도, 잠실체육관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도, 서울시청광장도, 용산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도 가득 채우는 대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나는 오는 10월 1일에도 서울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갖는다. 타이틀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다. 요즘 한일관계도 그렇고, 남북 및 북미간의 지난한 핵협상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 기도해야 할 때다. 교단이나 교파를 떠나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해서 기도해야 한다.

장사를 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팔 것인지 생각하고,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지도 파악하며, 이것이 시기에 맞는지도 생각하라. 유학을 가려는가? 무작정 떠나지 말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적성에는 무엇이 있는지 계획한 후에 떠나라.

막연한 구상은 이제 그만! 3T에 근거한 치밀한 계획으로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성공을 거머쥐는 자들이 되자.

하나님을 움직인 자들의 공통점

“가장 위대한 사람을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마치 카피문구처럼 단문으로 날아오는 목사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가슴을 때린다. 이는 목사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기도의 일생을 살아오셨고, 기도의 삶을 통하여 물 없는 사막의 길과 는 덮인 산야를 넘어 오늘에 이르렀기에 더욱 당당히 외치시는 것이리라.

“기도와 노력이란 친구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다. “...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므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삼상 1:5~6).

하나님이 닫은 문을 누가 열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으로는 차마 덮을 수 없는 대적 브닌나의 격동에 번민하며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한다.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술에 취했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구하고 또 구한 것이다. 아마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애통하며 부르짖다 탈진하여 기진맥진한 상태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

시랍니다.’라고 했으니 히스기야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히스기야의 위대한 믿음이 꽃을 피운다.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붙들고 애걸복걸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접하자 곧바로 벽을 향해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사38:2~3).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는 데는 몇 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는 2014년 서울시청광장의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준비할 때, 교역자들을 서울 시청 구관 앞에 모여 놓고 하였던 말씀이다. 성경에도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인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목사님 스스로도 이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확실한 판례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목사님이 늘 기도의 인물로 증거하시는 성경의 인물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히스기야왕이다. 이 두 인물은 하나님이 공포해버린 계획을 애통하는 기도로 되돌린 믿음의 사람들이다.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꼭 집어

다. 온몸의 진을 다 쏟아낸 혼신의 기도였으리라 생각된다. 그토록 간절한 열망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을 움직인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한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낳았을 뿐 아니라 이후로도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낳았다. 사무엘상 2장은 기도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의 회례에 가득찬 찬미로 가득하다.

히스기야는 또 어떠했던가?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병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아예 사형선고를 내리신다. 병든 자에게 찾아간 하나님의 종이 사는 길을 제시하며 복돋아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왕이며, 하나님이 그러시는 데 당신은 필히 죽을 테니 유언이나 하

결리지도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속한 응답으로, 그것도 그냥 반복 정도의 조치가 아니고, 수명을 15년 연장할 뿐 아니라 태양의 운행을 거꾸로 10도나 돌리는 징표로 확약까지 하신 것이다(사38:4~8).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는가?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위기 앞에 ‘왜 내게 이런 일이?’하며 불평하지도 않았다. 섬기던 그 자세 그대로 섬기는 분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응답한 역사의 실체가 이러하니 우리 모두 깊이 유념하자.

한은택 목사

하계산상집회

8월 5일(월)~8일(목), 12일(월)~15일(목) 예수중심기도원 문의: 02. 533. 9191
호텔예약: 7월 23일(화-첫째 주), 24일(수-둘째 주) 10시 정각, 홈페이지 예약(www.jcc.tv)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2:1~12)



구더기가 무서우면 장 담그지 말라

목회 초기, 저는 물론 우리 성도들은 물 불을 가리지 않고 주의 일에 전념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전단지과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했고, 제사를 안 지낸다고 남편에게 맞기도 했지만, 다음날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기쁨으로 교회에 나왔고 계속해서 전도에 매진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의 활활 타오르는 신앙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둘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부모가 반대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청춘남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우리의 신앙에 이상징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적당히 해라, 유난 떨지 마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타협하고, 자제하는 모습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유난을 떨지 않으면 우등생이 될 수 없습니다. 유난을 떨지 않고 어떻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니까? 우리는 도상 위의 주자일진대 우승한 자에게만 주는 면류관을 쓰려면 유난스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들어 갑자기 사람들이 '유난 떨지 마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다만 그때는 안 들렸던 것뿐입니다. 열심히 뛰고 달리느라 안 들렸던 것입니다. 요즘 새삼 그들의 말이 들리고, 그들의 시선이 의식되는 것은 그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들리고 보이는 것입니다. 기차가 달릴 때 개 짖는 소리는 안 들립니다. 짖고 있지만 안 들리지요. 그러나 멈추면 다 들리듯이 말입니다. '그 여자는 이래서 안 돼.'라고 엄마는 예전부터 말했다는 거지요. 사랑이 뜨거울 때는 그것이 안 들렸는데, 사랑이 식고 보니 엄마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엄마 말이 맞네.' 하고 동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르익어아 결혼에 골인한다

'그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남들처럼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첫사랑, 초심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

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2:4~5).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얼마 전에 뉴욕 맨해튼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모든 게 정지되어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갇히고, 행여 일어날지 모르는 약탈과 범죄 때문에 뉴욕시에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생에 정전사태가 나면 이렇게 됩니다. 도적이 들고 넘어져 다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순간, 인생에 정전이 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눅12:4). 마태복음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10:28)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고, 사람의 말에 충추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친구'라 칭하시며(요15:14), 그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귀담아들어야 할 소리는 그분이 무어라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

상 종일 두려워하느냐"(사51:12~13).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됩니다(잠29:25).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가 두렵다고 내 신앙을 팔아먹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입니다. 구더기는 나중에 떠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장을 안 담그면 간을 어찌 맞추니까? 간이 안 맞는 음식을 어찌 먹는단 말입니까? 사람의 비난과 모함 소리가 두려워서 신앙에 제동을 걸면 천국에 어찌 간담니까? 그들이 나를 구원해줄까?

축구 선수가 태클이 두렵다면 축구 그만둬야지요. 야구 선수가 외야의 야유소리가 두렵다면 야구 접어야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

들이 말하네, 두렵고, 눈이 두렵다면 적당히 신앙생활하세요. 기름을 적당히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는 당신 주변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온전히 당신 것이 될 겁니다. 그때 누구를 원망한다고, 누구를 탓한다고 천국 잔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주변의 핍박과 모함이 두려웠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타협했겠지요.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신상에 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더 잘 되었을까요? 더 지위가 올라갔을까요? No, No! 과정은 평탄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에게까지 버림받아 원래처럼 포로가 된 노예 신세로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교단에서 제명되는 게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했다면 오늘날의 예수중심교단이 있었을까요?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타협한 몇몇 목사들의 최후를 봤습니다. 목회도 못하고, 비참하게 된 것을 봤습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 사람의 종이지 하

나님의 종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버리신 까닭입니다. 여러분, 신앙뿐 아니라 무슨 일에든 저항은 있고 장애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무엇엔가 도전하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어찌겠습니까? 평생 그 밥에 그 반찬으로 살아야지요. 잠언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잠14:4)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이 두려워서 소를 못 키운다면 일일이 곡괭이 들고 사람이 일해야 하니 진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유가 더러워지더라도, 남이 좀 뭐라고 하더라도 소의 힘으로 밭을 갈아 곡식을 많이 거두면 손가락질하던 자가 곡식을 얻으러 올 것 아니겠습니까.

거센 파도가 유능한 해군을 만든다

자고로 장애물은 인생의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을 쳐야 인생의 맛이 나듯 장애물이 있어야 잠자는 인생이 깨어나고 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목표를 설정하면 귀는 막고 오직 목표물만 보고 달리세요. 물론 가다가 넘어질 수도,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운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상대를 KO시킬 수 있고, 일어나 다시 필때 누군가를 앞질러 우승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에 이르는 과정이요, 실패하지 않는 또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고 도전하세요. 반드시 승전보를 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시42:11).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겨자씨만한 믿음 ::

칭찬이 사람을 세운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잠27:21). 그런데 이 말씀의 원문에는 ‘시련하느니라, 단련하느니라’는 표현이 없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도가니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한 순은이 만들어지고, 풀무불을 통해 정금이 만들어지듯이, 칭찬 또한 사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도가니가 은의 가치를 높이고, 풀무의 뜨거운 열기가 금의 가치를 높이듯, 칭찬이 사람의 가치를 높여 사람을 세우는 법이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적절히 비판하며 교정해줘야 그가 바로 서고 성장할 것이라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더욱 성장 발전해간다. 기대와 칭찬이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하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머리 좋고, 배경 좋고, 재능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위기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 실패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키운다. 이것이 우리 인생 성공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한창때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소아마비장애를 앓게 되었다. 질병은 그의 마음과 삶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점

점 의기소침해지고 내성적이 되어갔으며, 결국엔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을 보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은 것이다. “너는 자랑스런 내 아들이야. 넌 뭐든 할 수 있어!” 아버지의 계속되는 격려와 칭찬은 루스벨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결국 그는 경제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국과 세계를 구한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네 번이나 대통령을 역임하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맥아더 장군은 어린 시절, 사고뭉치 골목대장으로 유명했다. 이 때문에 그의 부모는 그의 장래를 염려하곤 했다. 그러나 할머니만은 ‘너는 훌륭한 장군의 기질을 타고 났어.’라고 그를 격려했다. 맥아더는 그의 자서전에서 ‘할머니의 그 말이 나를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과 기대를 받고 자란 이들의 인생이 그 기대대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럼 언제까지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할까? 불순물이 다 빠질 때, 바로 그때까지다. 뭐든 하다 말면 미완성이다! 그리고 미완성 작품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끝까지 기대하고, 틈나는 대로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자! 기대가 사람을 만든다! 칭찬이 사람을 세운다!

신현명 목사

:: 신앙논객 ::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라

에릭 리들(Eric Liddel, 1902~1945)은 영국의 100m 육상 선수로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에 출전한다. 그러나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그는 100m 경기의 첫 예선일자가 주일로 발표되자마자, “저는 주일에는 안 뛰니다.”라며 단호한 결정을 내린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인들의 반응은 ‘편협하고 웅졸한 신앙인’, ‘신앙심 깊은 척하면서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등 냉소적인 비난 일색이었다. 에릭 리들은 100m 예선 경기가 열리던 주일날, 한 교회에서 간증 설교를 하며 평소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가 불참한 100m 경기에서는 영국의 다른 선수가 에릭 리들보다 약간 뒤진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에릭은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200m에서 동메달을 수상하고, 400m에도 출전하게 되나 역시 겨우 예선을 통과했다. 마침내 결승전 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에릭은 신들린 사람처럼 첫 코너를 돌았고, 경기 내내 선두 자리를 유지하며 월등히 결승선을 통과한다. 그는 결국 세계신기록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고, 이후 400m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

게 이렇게 대답한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국가적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4세의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떠난다. 그곳에서 그는 교사로 봉사하며 복음을 전했고, 농촌 지역 곳곳을 다니며 전도했으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 헌신한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몇 년간은 한 수용소에서 병든 사람과 어린이들을 도우며 살다가 44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얻은 성공으로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설령 국가적인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킨 에릭 리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제 곧 수련회가 다가온다. 청소년들이여, 이제 여러분이 에릭 리들처럼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할 때다.

신혁주 전도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쁘고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의 공통적인 속성이다. 외모는 유교사회에서도 중요한 덕목이었다. 당나라 시기부터 관리채용에 ‘신언서판’이라는 기준을 두었는데, 여기서 신(身)은 단순히 몸 상태가 아니라 용모를 뜻했다. 그러나 요즘 외모지상주의는 지나치게 과하다 싶다. 성경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나온다.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 농부의 딸로 포도원 지기다. 포도원 지기는 포도밭을 돌보는 일로 종일 햇빛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검게 타서 볼품없는 사람이었다. 스스로도 자신의 못난이 같은 얼굴을 ‘계달의 장막’ 같다고 표현했다. 그렇게 살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게 되고, 솔로몬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솔로몬이 볼품없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

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결혼까지 하게 되고, 솔로몬의 지극한 사랑으로 인해 술람미 여인의 마음도 회복되어 놀랍도록 변화한다. 술람미 여인의 외모가 바뀐 것도 아니고 검게 된 피부가 어찌된 것도 아니지만, 그녀는 솔로몬의 사랑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아가1:5).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랑하신다. 예뻐서도, 똑똑해서도 아니다. 그냥 눈에 콩깍지가 썩어서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좀 못 배웠어도, 남들보다 못한 외모라도,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자. 솔로몬의 사랑을 입은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여,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다.

김성일 집사



:: 생명의 말씀 ::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 가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된다. 뇌성마비라는 불편한 몸에서 나온 절절한 고백 때문일까? 지긋지긋한 가난, 선천적인 육체의 나약함, 극심한 원망과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신앙은 받아들이었으나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 ‘너 원망 그만하고 노트에다가 써 봐라.’ 하시는데 없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 썼다. 그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번엔 ‘공평하신 하나님’을 쓰라고 하셨다. 압박 나무의 아픔처럼 인간됨을 쓰며 그 한 줄을 놓고 씨름했었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그 한 줄을 쓰게 되면서 눈물이 터지고 이 찬양이 탄생하게 되었다.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남이 가지지 못한 것들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다. 불공평한 하나님에 대한 저항의 신학이 전복되었다. 이는 마치 시편 73편을 보는 듯하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문득 의문이 든다. 이 시편의 저자는 불공평해보이는 하나님의 본질을 탄핵하려 한다. 왜 오히려 악인들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재앙도 없이 평안하다가, 죽을

때는 고통도 없이 죽는가?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의문들이 다 그렇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잘 믿는 나입니까?’ 하고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에 대해 이런저런 불리한 조건들이 나라고 해답이 안 될 일도 없는 것이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온갖 고통은 누구에게나 무작위로 적용된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를 보는 눈이 부족한 것이다. 결국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종말을 확신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됨을 진정한 복으로 규정한다(시73:28). 어떤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붙들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관계의 믿음’이 강화되었다면 복이다. 세상의 악에 직면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적응해야 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말이다.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해와 비의 은혜를 주셔서(마5:45) 불공평해보이지만, 택한 자들을 다루시는 특별한 은혜는 언제나 공평하심을 넘어 복되다!

송직화 목사

오직 예수님을 위해

우리 교회는 체육관을 대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로 1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수들의 콘서트 일정이 잡힐 경우, 1체육관을 양보하고 2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방송실은 1체육관 내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고, 저는 자막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1체육관에 있는 방송실로 들어갑니다.

일본 모 가수의 콘서트 일정이 있었던 몇 주 전 주일입니다. 방송실에 가기 위해 1체육관 정문으로 들어서려는데, 그 콘서트의 스태프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공연 전에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게는 늘 있던 일이고, 사정을 말하면 바로 들여보내줬기에 침착했습니다. ‘안에 교회 방송실이 있고, 저는 거기를 가려고 한다’고 2번이나 말했는데도 ‘절대 안 된다’고 하던 그때, 저를 알아본 안내위원 장로님 두 분이 황급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스태프들은 공연 당일이라 예민했는지 조금도 물려서지 않았습다. 장로님들은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계속해서 사정하셨습니다.

급기야 그 스태프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하나며 장로님들께 짜증

을 냈습니다. 그들보다 적지 않은 나이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분들이 신데도 그 젊은 스태프들은 매우 무례했고, 그러나 장로님들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들의 무례함을 그저 참는 이유는 단 한가지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예전부터 위쪽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안내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체육관을 이용하러 오는 외부인들에게 위쪽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안내하면 그들은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화를 내며 무례하게 굴다. 그때마다 안내위원님들은 머리 숙여 양해를 구하고 소리 없이 마음을 다독여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한겨울에도,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여름에도, 마스크도 없이 매연을 마셔가며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저 모습일 테지.’ 하며 안내위원님들이 귀하고 멋지게 보여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를 도와주셨던 장로님들과 안내위원님들을 생각하며 영영 울었습니다. 그동안 지켜봐왔던 그분

들의 감사함이 설움으로 한꺼번에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이제까지의 설움들을 기억해주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누군가 제게 왜 봉사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칭찬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천국에 가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이제 막 도착한 저는 맨 뒤에 섰습니다. 저 멀리 예수님이 보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다니, 심장이 쿵쿵쿵 뛰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를 발견하시고 반갑게 손을 흔드십니다.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잘했어!”라고 말씀하시는 상상을 하면, 지친 마음에 이보다 큰 위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목사님을 도와 이룬 것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영신 성도**
rubyday0@naver.com

내 맘속의 자아 이미지

성공학의 대부이자 성공학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저서 ‘성공의 법칙’을 출판한 맥스웰 몰츠는 ‘자아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성공의 법칙들을 풀어낸다.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설명해보면, ‘자아 이미지’란 내 잠재의식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형상이나 생각이다.

어떤 부류의 사람은 ‘나는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라는 긍정의 자아 이미지를 가진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도 잘 안될 거야. 예전에도 잘 안됐으니깐. 나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 질 것 같아.’ 등등의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자아 이미지는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배경과 환경, 충격적인 쇼크 등에 영향을 받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며, 인간은 그 자아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 한 그 테두리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해답이 있다. 달리 말하면 성공하고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아 이미지만 바뀌주면 된다. 부정의 이미지, 절망의 이미지, 패배와 포기 의 이미지, 상처와 고통의 내적 이미지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파괴하셨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긍정의 이미지, 기쁨의 이미지, 성공의 이미지, 행복과 평강의 이미지를 스스로 우리 속에 반복해 주입시켜 나의 내적 자아 이미지를 의지적으로 변화시킨다면, 우리도 한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성공의 법칙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망치려고 오늘도 달려드는 악한 마귀와 귀신의 힘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지키고 변화시켜 축복의 삶을 영위해나가자.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하나님의 장막 시리즈 II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장막을 에덴동산으로부터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계획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어그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진 제단에 계속해서 나타나주십니다. 여러 제단들이 세워졌지만(아라랏 산, 모리아 산, 세겜, 벧엘, 헤브론, 브엘세바 등), 그중에 모리아 산과 벧엘은 특별히 중요한 장소로 구약에는 나타납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아들을 주님께 바치려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곳이며(창22), 벧엘은 야곱이 쌍둥이 형(에서)으로부터 피하여 집을 떠나가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창28), 자손이 창대하여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창35:1~1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신실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민족이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어야할 이스라엘의 믿음이 연약하므로 훈련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키우셨습니다. 애굽에서 안일하게 살던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했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요,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곧 왕과 백성 사이의 법이 된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장막(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에덴동산과 비슷한 모형입니다. 성막의 동쪽에 문이 있고 커튼에 그룹천사들이 새겨진 모양(출27:13~16, 25:18~22)은 에덴동산의 동쪽에 입구가 있고 그곳을 그룹천사가 지키는 것과 같으며(창3:24), 성소의 등잔 모양(출25:31~35)은 에덴동산의 생명나무와 같고(창2:9), 성소의 모든 기물들이 금으로 입혀진 것(출25:11, 17, 31 등)은 에덴동산에 풍성하게 금으로 돌린 것과 같으며(창2:11~12), 제사장들이 성막을 관리하는 것(민3:7~8)은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동산을 관리한 것과 유사하고(창2:15),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신 것(레26:12)은 에덴동산에서 거하신 것과 유사합니다(창3:8).

다시 말해, 성막은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는 장막이 되었습니다. 지성소의 법제 위에 있는 그룹천사들은 천국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있는 그룹천사들(겔10, 1,

계4)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그 법제는 천국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발판으로 상징되며,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물두멍, 향단, 등잔, 놋단, 세수대야 등), 떡과 떡상 등은 집에 필요한 물품들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가리시고 나타나시며,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그 기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막은 또한 우주를 축소한 모습입니다. 성막의 지붕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흰색 베실 등으로 짠 것으로, 이것은 여러 색깔의 하늘을 상징하며, 성막 안의 등잔 불빛은 해, 달, 별들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안에 거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자 함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변의 많은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펼쳐 가시고자 하시는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현재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하셨는지를 다음 시리즈에서 보겠습니다.

권문선 선교사